

## 《三國演義》중의 魏晉名士

— 擁劉反曹의 경향을 중심으로 —

남 민 수\*

<目次>

- |                      |                   |
|----------------------|-------------------|
| I. 緒論                | III. 魏晉名士와 《三國演義》 |
| II. 《三國演義》에 반영된 曹魏一家 | IV. 結論            |

### I. 緒論

中國의 古代史를 소재로 하고 있는 長篇小說은 대단히 많지만,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애독되는 古典小說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三國演義》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다. 《삼국연의》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역사를 읽어 내려가는 재미를 들 수 있는데, 後漢에서 三國時代에 이르는 백여 년간의 政治的·社會的 動亂이 독자의 주의를 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魏·蜀·吳 三國의 뛰어난 역사인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形形色色的 人物群像이 빚어내는 갖가지의 성격대립과 갈등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原因이 된다는 것이다. 《삼국연의》는 陳壽의 역사서 《三國志》의 내용을 기본적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소설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正史의 기록보다 裴松之注에 나와 있는 일화를 많이 운용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배송지는 《三國志》의 주석을 편찬 하면서, 민간의 각종 逸話나 野史도 《삼국지》의 주석작업에서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아마 배송지가 살았던 劉宋時代만 하더라도 三國時代의 인물들에 대한 일화가 적지 않게 口傳되었던 모양이다. 배송지의 注와 더불어 《삼국연의》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世說新語》가 劉宋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劉宋시대에는 口傳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적지 않은 野史와 逸話들을 접할 수 있다.

《三國演義》는 저자가 ‘擁劉反曹’라는 民間의 정서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三國時代의 主役으로 평가해야 할 曹魏一家가 상당히 폄하되어 있으며, 심지어 曹操를 비롯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비정상적 성격의 인물로 왜곡·변형되어 묘사되고 있다. 《삼국연의》의 저자는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삼국지》 배송지의 注나 《세설신어》등에 나타나는 단편적 기록들을 소설 속에 삽입하되, 羅貫中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용의주도하게 취사선택하여 선별적으로 《삼국연의》의 줄거리에 반영하였다.

本考는 《삼국연의》의 주요한 사상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擁劉反曹’라는 民間의 정서가 소설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몇 몇 역사자료가 소설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 羅貫中이 ‘擁劉反曹’라는 대중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역사자료를 운용한 결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魏晉名士의 인물형상을 어떤 식으로 定型化했는지, 이렇게 정형화된 인물형상은 역사기록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三國演義》에 반영된 曹魏一家

《三國演義》에는 ‘擁劉反曹’의 사상적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劉備를 중심으로 하는 蜀漢軍閥集團의 興起와 沒落이 이야기의

주요 흐름이 되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sup>1)</sup> 저자 羅貫中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지극히 적은 탓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저자가 元末明初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sup>2)</sup> 나관중은 몽고족의 침략에 대해 항거하려는 민족적 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擁劉反曹’의 사상적 경향은 清代 毛宗綱이 기존 《三國演義》를 새롭게 편찬 정리한, 第一才子本 《三國演義》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歷史小說이 곧 歷史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의소설이 蜀漢군벌집단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쩌면 봉건시대의 질곡에 신음했던 민중들의 고통을 통속소설의 저자들이 충분히 이해했기에, 그들은 바보 같은 정도로 선량한 統治者形象(즉 劉備)을 빚어내게 되었을 것이다. 민중들의 이러한 갈망이 劉備와 諸葛亮 등을 중심으로 하는 蜀漢군벌집단을 仁義의 化身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게 된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陳壽의 《三國志》를 읽어보면, 三國時代 역사의 주요 흐름은 劉備와 그 군벌집단의 흥망사라기보다 曹操를 중심으로 한 曹魏一家의 흥망사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sup>3)</sup> 비록 실제의 역사흐름은 魏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삼국연의》의 저자는 歷史的弱者였던 蜀漢군벌집단에 대해 많은 동정심을 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들 집단이 義理를 지키는 正義의 군벌이었음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역사소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이 역사사건을 왜곡할 수는 없다.

- 
- 1)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第4冊), 三聯書店香港分店, 1987, 17쪽.  
 2) 정원기 지음, 《최근삼국지연의의 연구동향》, 대구 중문출판사, 1998, 117-120쪽 참조.  
 《삼국연의》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① 章培恒, 馬美信, 袁世碩: 元代中後期.  
 ② 陳鐵民: 元末.  
 ③ 歐陽健, 任昭坤: 明初.  
 ④ 張國光: 明中期  
 3) 陳壽의 《三國志》가 曹魏一家를 正統으로 보고 있는 점, 魏나라를 계승한 晋나라가 결국 천하를 통일했다는 점 등을 상기할 때, 三國時代 역사의 흐름은 北方의 왕조(魏)가 주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삼국연의》의 저자 나관중은 주로 人物形象을 빚어내는 과정에서 野史나 逸話에 해당하는 역사적 재료를 적절히 재편집하여 曹魏軍閥集團의 醜惡性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역사사건을 재가공하여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삼국연의》에서 劉備 이상의 비중을 가지는 인물 曹操에 대해 작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작품의 전편을 통해 작자는 曹魏軍閥集團의 지도자인 曹操를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에 橋玄(橋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조에게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지게 되면 하늘이 낸 재주가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네. 천하를 평안하게 할 사람은 아마도 그대인가?”라고 하였다. 남양지방의 何顛(何顛)도 조조를 보고나서 말하기를, “한왕조는 장차 망할 것인데 천하를 안정시킬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네.”라고 하였다. 여남 지방의 許都(許都)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으로 명성이 있었다. 조조가 그를 찾아가서 물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許都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조가) 또 묻자 許都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평화스러운 세상에는 유능한 신하가 될 것이며, 혼란스러운 세상에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일세.” 이 말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였다.<sup>4)</sup>

위의 인용문은 《三國演義》 제1회에 나오는 장면으로 조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즉, 조조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배경장면이다. 바로 앞의 구절에서는 꽤 많은 조조가 자신의 방탕함을 꾸짖는 宿부를 귀찮게 여겨 거짓으로 간질병을 가장하여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아버지가 조조의 宿부를 거짓말쟁이로 여기게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즉, 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작자는 조조를 교활한 책략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조는 원래부터 성격이 음험하였으므로 영웅이라는

4) 時人有橋玄者，謂操曰，“天下將亂，非命世之才不能濟。能安之者，其在君乎？”南陽何顛見操，言，“漢室將亡，安天下者，必此人也。”汝南許都，有知人之名。操往見之，問曰，“我何如人？”都答，又問，都曰，“子治世之能臣，亂世之奸雄也。”操聞言大喜。羅貫中 著 魏雯 路遠 校點，《三國演義》，春風文藝出版社，1997，8쪽.

평가보다 간사한 영웅이란 평가를 더 좋아했다 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조는 허소가 평가한 말(‘子治世之能臣, 亂世之奸雄也’)을 듣고 과연 크게 기뻐했었는가? 《世說新語》(劉義慶)의 한 대목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기로 하자.

조조공이 젊었을 때, 교현을 만나게 되었다. 교현이 말하기를, “천하가 이제 어지러워지면 못 영웅들이 다투게 될 것인데, 그들을 누르고 다스릴 사람은 그대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는 실로 혼란한 시대의 영웅이며 평화스러운 시대의 간사한 도적이 될 것이네. 유감스럽게도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그대의 부귀를 볼 수 없다네. 마땅히 자손들을 부탁하겠네.” 라고 하였다.<sup>5)</sup>

이 인용문은 《世說新語》·〈識鑑〉편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로, 當代의 名士였고 知人之鑑으로 이름 높았던 橋玄이 조조의 뛰어난 도량을 기꺼이 인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후손을 부탁한다고 할 정도로 조조를 극찬했다는 것이다.<sup>6)</sup> 《삼국연의》의 작자도 분명 이 기록을 보았을 것이지만, 조조를 ‘亂世之英雄’으로 서술하기보다 ‘亂世之奸雄’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 曹操의 雄才大略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그의 人性은 어디까지나 음험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식의 묘사는 조조의 실제 성격과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 예

5) 曹公少時見橋玄, 玄謂曰, “天下方亂, 群雄虎爭, 撥而理之, 非君乎? 然君實是亂世之英雄, 治世之奸賊! 恨吾老矣, 不見君富貴, 當以子孫相累.” 劉義慶 編, 劉正浩 譯, 《世說新語》, 臺北 三民書局, 1996, 323쪽.

6) 《世說新語》는 劉宋의 왕자였던 劉義慶과 그의 文人집단이 편찬한 책으로, 魏晉시대의 역사인물과 문인 등 500여명 이상의 인물에 대해 그 행적과 언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소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생활이나 풍속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사상경향도 이해할 수 있게 하므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책에는 曹操에 관한 記事가 6~7편 실려 있으나 傳聞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好惡의 감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다. 다만 그 사료가 믿을만한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시대적으로는 삼국시대와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가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컨대 유명한 官渡大戰(AD 200년)에서 승리한 조조가 전란의 수습과정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한 일련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삼국연의》 제30회), 조조는 편지묵음을 모두 불태우게 하면서 “강대한 원소의 군대를 맞이하여 나 역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느냐?(當紹之強, 孤亦不能自保, 況他人乎?)”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 기록이며(裴松之 注에 보임), 이런 식의 행동에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조의 그릇을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羅貫中은 《삼국연의》에서 이러한 뛰어난 정치적 재능은 거의 생략해버리고, 조조의 잔인한 정치적 수단만을 부각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조조를 돕다가 그에게 살해되거나 배신당하는 지식인의 형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조의 잔인성을 과장하는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삼국연의》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擁劉反曹’의 경향은 나관중의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孔融과 禰衡 같은 지식인에 대한 묘사가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三國演義》에서 北海太守 공융은 後漢王朝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심지어 그는 漢왕조를 옹호하기위해 조조와 끊임없이 대립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정말 그러했는가? 먼저 《世說新語》·〈言語〉편에 기록되어 있는 공융과 예형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 (a) 공융의 나이 10세 일 때, 그는 부친을 따라 낙양에 이르렀다. 당시에 이원례(李膺)는 성대한 명성이 있었고 사례교위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 집안을 방문하는 자들은 모두 뛰어난 재능과 명성이 있는 자들이거나 (이원례와) 내외의 친척지간이어야만 안으로 통보하였다. 공융이 (이원례 집의) 때문에 이르자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李府君의 친척이다.”라고 하였다. (문지기가) 통보하여 (공융은) 이원례의 앞에 앉았다. 이원례가 물었다. “그대와 나는 어떠한 친척관계가 있는가?” (공융이) “옛날 돌아가신 선조이신 孔子님과 그대의 돌아가신 조상인 老子님은 스승과 제자로 존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그대는 여러 代에 걸쳐 통교하는 관계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원례와

손님들은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b) 예형이 위무제(曹操)에 의해 강등되어 복지는 관리가 되어 8월 15일에 복을 치게 되었는데, 복채를 들고 <漁陽三搥>를 치니 쟁쟁하는 쇠 소리가 났으므로 사방에 앉아 있는 빈객들이 얼굴색을 바꾸었다. 공옹이 말했다. “예형의 죄는 (가벼운 죄를 짓고 복역하였던) 부열(傅說: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殷나라 高宗에게 발탁됨)의 죄와 같은 것으로 현명한 임금께서 꿈을 꾸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이에 위무제는 부끄러워하면서 예형을 사면하였다.<sup>7)</sup>

(a)는 10세 때의 공옹이 놀라운 재치를 보여줌으로써 後漢시대의 명사로 손꼽혔던 이원례(李膺)의 격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천재적인 기지는 이후 공옹의 인생가도에 커다란 역할을 한 자산이 되었다고 하겠다. (b)는 공옹이 천거하였던 當대의 才士 禰衡이 조조의 홀대를 받게 되자 공옹이 직언하여 조조가 공옹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世說新語》·<言語>편의 기록을 근거로 살펴보면, 공옹과 예형이 後漢王室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조조에게 항거했다는 일화는 찾기 어렵다. 《삼국연의》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예형이 복을 치면서 옷을 다 벗고 나체를 드러내어 조조를 욕보였다는 일화는 더더욱 찾을 수 없다. 공옹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옹이 조조의 견제를 받아 피살된 것은 공옹이 曹操의 禁酒令을 어긴 것이 주요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그러나 《삼국연의》의 저

7) (a)……孔文學年十歲，隨父到洛。時李元禮有盛名，爲司隸校尉，詣門者皆雋才清稱，及中表親戚乃通。文學至門，謂吏曰，“我是李府君親。”既通，前坐。元禮問曰，“君與僕有何親？”對曰，“昔先君仲尼，與君先人伯陽，有師資之尊；是僕與君奕世爲通好也。”元禮及賓客莫不奇之。(b) 禰衡被魏武謫爲鼓吏，正月半試鼓，衡揚袂舞<漁陽三搥>，淵淵有金石聲，四坐爲之改容。孔融曰，“禰衡罪同胥靡，不能發明王之夢！”魏武慚而赦之。劉義慶編，劉正浩譯，《世說新語》，臺北 三民書局，1996，38쪽，44쪽.

8) 공옹과 조조의 관계에 대해 배송지는 《漢紀》(張璠)의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太祖制禁酒，而融書嘲之‘天有酒旗之星，地列酒泉之郡，人有旨酒之德，故堯不飲千鐘，無以成其聖。且桀紂以色亡國，今令不禁婚姻也。’太祖外雖寬容，而內不能平。御史大夫郗慮知旨，以法免融官。) 陳壽著 楊家駱編，《三國志》·<魏書> 卷12，臺北 鼎文書局，1979，97쪽.

자는 두 사람을 대단한 재주를 가진 文士로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漢王朝에 충성을 다하다가 조조의 심기를 거슬려 피살당한 한나라의 충신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관중은 이런 대단한 재주를 가진 文士들을 조조가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했다는 에피소드들을 적절히 삽입하여 그가 시기심 많고 도량도 좁은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曹操一家의 形象을 왜곡하기 위해서 역사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 조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전개된 曹조와 曹植의 경쟁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비와 조식은 모두 뛰어난 文才와 武才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식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으므로 문학을 애호했던 조조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조식은 정치가로 대성하기에는 치명적 결점이 있었으며(조식은 시인으로서의 재능이 매우 뛰어 났으나 이러한 그의 감수성은 정치가로서의 역할에 적절하지 않았다), 바로 그러한 결점 때문에 조조는 조식을 후계자의 자리에서 배제한 것이지 《삼국연의》에서 보듯이 출정 나갈 때마다 조비가 눈물을 짜는 등 연출을 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바꾸게 된 것은 아니다. 《三國志》·〈陳思王傳〉을 근거로 살펴보면 조조가 조식을 태자의 자리에서 배제한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sup>9)</sup> 첫째, 조식이 방자하게 天子만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馳道를 자신의 수레를 몰고 가 이용한 사건. 둘째, 曹仁이 關羽의 포위를 받게 되었을 때, 조식을 사령관으로 하여 조인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조식이 술에 취해 도저히 조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사건. 결국 조식의 치명적 약점이란 예술적 천재에게 자주 보이는 자유분방함과 飲酒癖이며, 이러한 시인적기질은 냉정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통치자의 성격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9) ……植嘗乘車行馳道中，開司馬門出。太祖大怒，公車令坐死。由是重諸侯科禁，而植寵日衰。太祖既慮終始之變，以楊脩頗有才策，而又袁氏之甥也，於是以罪誅脩。植益內不自安。二十四年，曹仁爲關羽所圍。太祖以植爲南中郎將，行正虜將軍，欲遣救仁，呼有所勅戒。植醉不能受命，於是悔而罷之。陳壽 著 楊家駱 編，前揭書，147쪽.

조조의 후계자 결정은 지극히 타당한 것인데도 《삼국연의》의 저자는 도리어 조식의 결점을 감추고, 조비의 잔인한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조조의 결정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조조의 후계자인 조비에 대해서는 형제들마저 마구 살해하는 무자비한 暴君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비는 무자비한 暴君이었는가? 아마 《삼국연의》의 저자가 원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세설신어》를 보면, 조비가 조식을 강요하여 七步詩를 짓게 했다는 구절과 조비가 曹彰을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sup>10)</sup> 나관중은 분명히 《세설신어》의 기록이 曹氏一家의 추악한 면모를 잘 드러내 준다고 여겼던 것 같다. 《삼국연의》 제79회를 보면, 太后 卞氏가 曹雄의 自殺에 이어(역사기록에 의하면 自殺이 아님) 조비가 다시 조식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병풍 뒤에서 조식이 七步詩 짓는 것을 엿듣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나와 조식의 救命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역사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 조식이 분명히 國法을 어기는 일이 있긴 있는 듯하다. 그러나 裴松之의 注에 근거하면, 卞태후는 결코 조식을 변호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으로 인해 國法이 어겨지지 않도록 하라고 조비에게 당부하였다.<sup>11)</sup> 그렇다면 전후사정으로 보아 卞태후는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조식에 대해서도 법을 어겼다면 달게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만큼, 병풍 뒤에서 황제의 말을 엿듣거나 조식을 살려달라고 말할 여인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10) <文學>(6번째 고사): 文帝嘗令東阿王七步作詩, 不成者行大法. 應聲便謂詩曰, “煮豆持作羹, 漉菽以爲汁, 其在釜下燃, 豆在釜中泣. 本自同根生, 相煎何太急!” 帝深有慚色. <尤悔>(33번째 고사): “魏文帝忌弟任城王驍壯, 因在下太后閣共圍碁, 並棗. 文帝以毒置諸棗蒂中, 自選可食者而進; 王弗悟, 遂雜進之. 既中毒, 太后索水救之. 帝預勅左右毀餅罐. 太后徒跣趨井, 無以汲, 須臾, 遂卒. 復欲害東阿, 太后曰, 汝已殺我任城, 不得復殺我東阿.” 劉義慶 編 劉正浩 譯, 《世說新語》, 前揭書, 204쪽, 831쪽.

11) 裴松之는 《魏書》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魏書曰: 后以國用不足, 減損御食, 諸金銀器物皆去之. 東阿王植, 太后少子, 最愛之. 後植犯法, 爲有司所奏, 文帝令太后弟子奉車都尉蘭持公卿議白太后, 太后曰, “不意此兒所作如是, 汝還語帝, 不可以我故壞國法.” 及自見帝, 不以爲言.) 陳壽, 《三國志》, 前揭書, 41쪽.

불구하고 연의소설의 저자가 굳이 正史를 외면하고 《世說新語》의 기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조조의 후계자인 曹操의 人性을 극도로 醜化시켜 형제간의 인정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자라고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三國演義》에 나타나는 ‘擁劉反曹’의 사상경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에서는 50년대 이래, 조조의 역사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曹操翻案’의 문제가 郭沫若과 翦伯贊 등 歷史學者에 의해 제기된 바 있고<sup>12)</sup>, 현재 중국의 역사서기술은 조조와 위나라의 역사적 의의를 가볍게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曹操翻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여겨진다. 《三國演義》의 ‘擁劉反曹’ 경향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따로 논의할 필요도 없을 듯이 보이나 나관중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졌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작자 羅貫中과 연관된 근거자료가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통해 逆으로 작가의 의도를 유추해야 한다는 곤란한 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관중은 《삼국연의》를 창작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자료를 근거로 작품을 집필한 듯하다. 첫째는 陳壽의 《三國志》와 裴松之의 주석이고, 둘째는 民間에서 口傳되던 民間자료이며, 셋째는 講史話本 《三國志平話》 등 說書人の 正本이다.<sup>13)</sup> 우리는 宋代에 이미 ‘說三分’이라는 제목의 三國故事를 講說하는 전문적 口演활동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 《東坡志林》(蘇軾)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팽이 일찍이 말하기를 길거리나 골목의 아이들이 장난을 쳐서 그 집 안 식구들이 귀찮아지면 곧 돈을 주어 청중들이 모여 앉아 옛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보냈다. 이야기가 삼국시대의 사건에 미치면 유비가 패했다는 말을 듣고 자주 미간을 찌푸렸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으며 조조가 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통쾌하다고 외쳤다. 이러한 까닭에 군자와 소인의 은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12) 李希凡, 《論中國古典小說中的藝術形象》,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2, 59쪽.

13) 吳雙翼, 《明清小說講話》, 臺北 木鐸出版社, 1983, 28쪽.

14) “……王彭嘗云, 途巷中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 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

《東坡志林》의 기록으로 볼 때, 宋代에 이미 민간에서 三國故事를 전문으로 講說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說書人의 이야기에는 ‘擁劉反曹’의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元代의 雜劇 19종은 呂布故事(《虎牢關三戰呂布》·《連環計》·《斬呂布》)·諸葛亮故事(《臥龍岡》·《博望燒屯》·《燒樊城》·《襄陽會》·《祭風》·《隔江鬪智》·《哭周瑜》·《五丈原》)·周瑜故事(《謁魯肅》·《隔江鬪智》·《哭周瑜》)·劉關張故事(《三戰呂布》·《斬呂布》)·關羽故事(《義勇辭錦》·《單刀會》)·曹植과 管寧 등 小故事 등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胡適의 《三國演義考證》) 胡適이 분류한 元代의 雜劇 가운데에서 諸葛亮과 연관된 것·關羽와 연관된 것·劉備와 關羽 및 張飛 세 사람이 연관된 것 등, ‘擁劉反曹’의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 절반이나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는 宋代에 이미 사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元代에는 雜劇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毛宗綱의 第一才子本 《三國演義》는 문장의 典雅함을 추구하는 한편, 曹操의 醜惡함은 부각시키고 劉備의 寬仁함은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장을 재편집하였다.<sup>15)</sup> 그 결과 毛宗綱의 판본(통행본)은 봉건시대의 통치자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은 듯하다. 사실 明代에 수많은 關帝廟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三國演義》를 대하는 통치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삼국지평화》처럼 역사적 사실도 무시하고 아예 擁劉抑曹의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도 있지만, 나관중은 기본적으로 《삼국지평화》의 서술방법을 쫓지 않고 역사서(《삼국지》나 《세설신어》)를 많이 인용하였다. 이 때문에 역사사

國事，聞劉玄德敗，頻蹙眉，有出涕者，聞曹操敗，即喜唱快。以是知君子小人之澤，百世不斬。” 魯迅，〈中國小說史略〉(《魯迅全集》제9권, 1991), 128쪽.

15) 毛宗綱本 《三國演義》의 특징은 蜀漢의 功臣들을 손상시킬만한 내용은 삭제하고, 봉건윤리나 儒家의 理想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 評點을 통해서 제갈량 등 촉한의 공신들에 대해 최대한 찬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陳翔華, 〈諸葛亮形象演變史論綱〉, 《古典文學論叢》, 濟南齊魯書社, 1986, 142-145쪽)

실이 너무 많이 列入되어 진짜 역사와 허구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說書人の 大本인 《삼국지평화》가 기본적으로 황당한 내용을 많이 싣고 있고 문맥조차 어색할 정도로 說書人の 어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관중이 이를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문인취미를 드러내고 있는 나관중도 수백년간 전래되어온 민간의 三國관념, 즉 대중들이 유비를 동정하고 조조를 혐오하는 습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방향은 擁劉反曹의 방향으로 밀고 나간 것이다.

### III. 魏晉名士와 《三國演義》

蜀漢王朝의 興亡盛衰가 아니고 曹魏王朝의 興亡이라는 표준에 비추어 《三國演義》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曹氏一家의 興起가 중심이 되고 후반부는 司馬氏一家의 興起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전반부에서 ‘擁劉反曹’의 경향과 더불어 後漢의 황제들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저자가 후반부에서는 弱者가 되어 버린 曹魏의 황제들에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 실력자로 부상하게 된 司馬氏一家에게 차갑고도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建安(AD 196년~220년)연호가 後漢의 연호이지만 사실은 曹氏의 천하였던 것처럼, 正始(AD 240년~249년)와 泰始(AD 265년~274년)의 연호는 魏의 연호이지만 사실상 司馬氏의 天下였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清談思想’이라는 것은 바로 이 正始시기를 전후하여 활동하였던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된 사상운동이다. 이 시기의 격렬한 정치적 투쟁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현실세계에 염증을 느끼게 하여, 竹林七賢과 같이 禮教를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생활하겠다는 현실도피풍조가 나타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何晏·嵇康 등의 문인들은 曹操一家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 격렬한 정치투쟁의 현장에서 달아날 수가 없었고, 결국 司馬氏一家에 의해 피살되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

魏晉교체의 분수령이 된 사건은 司馬懿一家가 大將軍 曹爽을 제거한 사건인데, 이 一戰은 실상 사마의의 주도면밀한 책략에 의한 것이었다. 조상이 치열한 권력투쟁에서 사마의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曹氏一家를 옹호하던 수많은 文人들도 갑자기 의지할 곳을 잃게 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 권력투쟁의 경과는 《삼국연의》제 106회~107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안 등의 文人이 대장군 조상에게 권유하여 (실권을 빼앗기 위해) 사마의를 太傅로 임명하고 兵權을 장악할 때만 해도 사태는 曹氏一家에게 유리한 듯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권력에 도취한 조상이 사치와 일락에 빠져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정세는 점차 사마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중병을 가장한 사마의의 계략을 읽지 못한 조상이 여전히 사냥 등을 즐기다가 일거에 兵權을 잃게 되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삼국연의》의 저자는 106회에서 管輅가 何晏 등의 점괘를 보는 단락을 삽입하여 조씨일가의 몰락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두고 있다.

이리하여 (하안은) 관노에게 물었다. “시험 삼아 나에게 점을 한번 보아 주시오.三公의 지위에 이를 수 있겠소?” 또 “꿈속에서 쇠파리 수 십 마리가 내 코 위에 모였는데 이것은 어떤 징조이겠소?”라고 물었다. 관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八元和 八愷의 현인들이 순임금을 보좌하였고 周公이 周나라를 보좌하였는데 모두 온화하고 겸손한 것으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군후께서는 지위가 높고 권세가 무거우신데 (주위에) 덕을 가진 자는 많지 않고 위엄을 두려워하는 자는 많이 있으니 아마도 조심하고 복을 구하는 도리는 아닐 것입니다. 또 코라는 것은 산입니다. 산은 높더라도 위협하지 않아야 하며, 이리하여야 존귀한 지위를 오래도록 지킬 것입니다. 이제 쇠파리가 악취를 맡고 모여드는 것은 지위가 높은 자가 거꾸러지는 격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군후께서는 많은 곳은 덜어주시고 모자라는 곳은 더 주셔서 예가 아니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야三公의 지위도 이를 수 있으며 쇠파리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양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는 늙은 서생의 평범한 이야기 일 뿐이오.” 관노는 “늙은 서생은 생겨나지 않은 일을 볼 수 있고 평범

한 이야기를 하는 자는 말 하지 않는 것도 보는 법이외다.”라고 말하더니 드디어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정말 미친 서생이군!”이라고 하였다.<sup>16)</sup>

위나라 때, 管輅는 당시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다. 何晏과 鄧颺 등은 위나라 대장군 조상의 참모로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른바 ‘靑蠅夢’이란 조상과 그의 무리들이 장차 사마의와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관노의 점괘풀이는 간결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치열한 정치적 투쟁의 결과를 암시해 주고 있다. 이 기록은 분명 《三國志》의 <管輅傳>에서 인용한 것이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世說新語》의 기록은 《삼국지》와 조금 차이가 있다.

하안과 등양이 관노에게 점괘를 뽑게 하여 묻기를 “관위가 삼공의 지위에 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점괘가 이루어지자 관노는 옛날의 좋은 글을 인용하며 그들을 깊이 경계하였다. 등양이 “이것은 늙은 서생의 평범한 이야기이외다.”라고 하였다. 하안이 말하기를 “일의 기미를 알면 그것은 신령스럽다고 하는데 옛 사람은 (그것을) 어렵게 여겼으며, ‘친밀하지 않은데도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요즘 사람은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 이제 그대는 한번 만났을 뿐인데 두 가지 어려운 도리를 모두 실천했으니 ‘밝은 덕은 향기를 낸다!’고 할 수 있겠다. 《시경》에도 말하지 않았는가? ‘마음속에 그것을 감무리하니, 어느 날에나 그것을 잊으리!’”라고 하였다.<sup>17)</sup>

16) …… 姻謂輅曰: “試爲我卜一卦, 可至三公否?” 又問: “連夢靑蠅數十, 來集鼻上, 此是何兆?” 輅曰: “元·愷輔舜, 周公佐周, 皆以和惠謙恭, 享有多福. 今君侯位尊勢重, 而懷德者鮮, 畏威者衆, 殆非小心求福之道, 且鼻者, 山也. 山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今靑蠅臭惡而集焉, 位峻者顛, 可不懼乎? 願君侯哀多益寡, 非禮勿履. 然後三公可至, 靑蠅可驅也.” 鄧颺怒曰: “此老生之常談耳!” 輅曰: “老生者見不生, 常談者見不談.” 遂拂袖而去. 二人大笑曰: “眞狂士也!” 羅貫中 著 魏斐 路遠 校點, 《三國演義》, 前掲書, 949쪽.

17) 劉義慶 編 劉正浩 譯, 《世說新語》, 前掲書, 505-506쪽.

하안은 왕필과 더불어 魏晉時代를 대표하는 老莊思想家的 한 사람이었다. 하안이 사상계의 총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曹氏一門의 公主와 결혼하여 駙馬가 되면서부터이지만 대장군 조상의 측근이 되면서 그의 지위는 더더욱 견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설신어》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안은 管輅의 충고에 대해 늙은 서생의 이야기로 폄하하면서 비웃는 등양과 달리 그 예언의 깊은 의미를 음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演義》의 저자는 고의로 하안의 비평을 삭제함으로써 마치 하안이 등양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은 사실왜곡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상의 참모들이 경박하다는 느낌을 자아내면서 사마의 집단의 치밀한 陰謀와 대비시키는 절묘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상계의 총아였던(위나라 현학의 기풍은 하안이 일으켰다고 평가됨) 하안은 도저히 사마의의 적수가 될 수 없었으며, 결국 주군 조상과 더불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조상의 몰락은 몇몇 지식인이 겨우 지탱하고 있던 魏王室의 마지막 버팀목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왕실에 마지막 충성을 다하려는 지식인들도 연이어 붕괴의 길을 걷게 하였다.

魏皇帝였던 曹髦가 굴욕을 참지 못해 司馬氏를 토벌하려고 하다가 사마소의 부하였던 成濟에게 무참하게 피살된 사건은(《삼국연의》제114회) 魏-晉의 교체가 시대의 흐름임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뛰어난 문학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嵇康이 피살된 사건 역시 司馬氏 집안의 得勢를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겠다. 사마소의 謀臣으로, 떠오르는 별과 같았던 鍾會는 사마소에게 嵇康을 모함하고 결국 사마소가 嵇康을 주살하게 만들었다.<sup>18)</sup> 종회와 등에는 모두 魏晉의 명사로써

18) 《晉書》(楊家駱 編, 《晉書》 卷49, 臺北 鼎文書局, 1980)의 <嵇康列傳>에 의하면, 嵇康은 조조의 집안이었다던 長樂公主와 결혼했으며 阮籍이나 山濤 등의 인물과 교류하면서 문학 활동에 열중하였다. 그는 長樂公主와의 결혼으로 인해 魏王室과 인척지간이 되었고, 老莊思想을 추종하는 자신의 입장과 달리 魏왕실의 부마라는 신분 때문에 현실정치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일찍이 鍾會는 嵇康의 명성을 듣고 그를 방문하였는데 嵇康은 풀무질에서 담금질을 하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嵇康이 “무엇을 듣고 왔으며 또

위와 진의 교체시기에 많은 활약을 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까닭에 《세설신어》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삼국연의》에서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삼국연의》 제107회를 보면, 조상이 제거되자 의탁할 곳이 없어진 하후패가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하고, 촉한의 강유에게 항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강유가 위나라의 인재들에 대해 묻자, 하후패는 종회와 등애의 두 사람을 거명한다. 하후패가 설명하는 이야기 속에 거론되는 종회와 등애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곧 《세설신어》에서 인용한 것이다.

- (a) 종유과 종회 형제는 어릴 때부터 명성이 있었다. 나이 13세가 되자 위 문제(曹丕)가 그들에 대해서 듣고, 그 아버지 종요에게 “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직명으로 (위문제를) 알현하게 되었다. 종유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보고 문제가 물었다. “그대의 얼굴은 어찌하여 땀이 흐르는가?” 종유가 대답하기를, “두렵고 황공하여 땀이 국처럼 납니다.”라고 하였다. 다시 (문제가) 종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지 않는가?” 종회가 대답하기를, “황공하고 떨어져서 땀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 (b) 등애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어서 말을 할 때면 “애애……”라고 하곤 했다. 진문왕(사마소)이 그를 놀리며 “그대는 ‘애애’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사람의 ‘등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등애가 대답하기를, “봉이여, 봉이여”라고 하지만, 원래 봉새는 한 마리입니다.”라고 하였다.<sup>19)</sup>

무엇을 보고 가는가?”라고 묻자 종회는 “들은 바를 듣고 왔고 본대로 간다.”는 가시 돌친 대답을 하였다. 종회가 나중에 사마소의 참모가 되자 혜강을 주의해야 한다고 자주 진언하였고, 결국 혜강은 풍속을 해친다는 누명을 쓰고 사마소에 의해 피살되었다.

- 19) (a) 鍾毓鍾會少有令譽. 年十三, 魏文帝聞之, 語其父鍾繇曰, “可令二子來.”於是勅見. 毓面有汗, 帝曰, “卿面何以汗?” 毓對曰, “戰戰惶惶, 汗出如漿.” 復問會, “卿何以不汗?” 對曰, “戰戰慄慄, 汗不得出.”
- (b) 鄧艾口吃, 語稱艾艾. 晉文王戲之曰, “卿云‘艾艾’, 爲是幾艾?” 對曰, “鳳兮, 鳳兮, 故是一鳳.” 劉義慶 編, 劉正浩 譯, 《世說新語》, 前揭書, 47쪽, 52쪽.

중회와 등애의 두 사람은 소년시절부터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재능을 보여 주었는데, 그들의 이런 재능은 행운과 불행을 함께 가져 왔다. 魏나라의 실권자인 司馬昭는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蜀漢평정의 군사 임무에 그들을 기용했지만, 그들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는 않았다. 그들의 재능은 촉한을 평정하는 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었지만, 사마소의 의심의 그물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중회가 등애를 죄인으로 만들고 반란을 꾀하다가 도리어 두 사람 다 몰락하게 된 것은 사마소의 모략이 그들의 재능보다 한 수 위였음을 보여준다. 《삼국연의》의 후반부에는 위·촉·오 세 나라 모두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지닌 將軍이나 謀士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회와 등애의 두 사람은 후반부의 줄거리 전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서로 다투어 촉한의 평정에 뛰어 들고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여가면서 마침내 촉한의 평정에 성공하지만, 성공이 곧 자승자박의 결과로 연결되었다. 魏나라 후반기의 대표적 名士였던 두 사람이 政界에 뛰어들어 將軍으로 軍功을 올리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 사건은 당시의 名士들로 하여금 현실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擁劉反曹’의 경향은 《三國演義》의 후반부에 기묘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曹操의 집안을 옹호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일련의 지식인들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인물이고(魏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司馬氏一家의 무리들과 가까이 하는 무리들은(魏왕조의 입장에서 볼 때) 반역의 무리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면, 魏晉시대 名士들의 처신이 얼마나 어려웠겠나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관중은 이 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서술하면서 큰 틀에서 역사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는 역사소설의 금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민간의 ‘擁劉反曹’ 경향을 무조건적으로 쫓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IV. 結 論

역사소설은 역사를 근거로 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소설의 장점인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훌륭한 역사소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삼국연의》는 역사와 상상력이 절묘하게 배합된 한 편의 뛰어난 역사소설이라 하겠다.

역사시대로서의 ‘魏晉시대’는 建安文壇을 시작으로 하여 (建安風骨로 불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詩文學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상과 문화는 後漢의 붕괴를 계기로 해서 나타난 새로운 정치·문화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曹魏王朝와 西晉王朝의 형성과정은 이 시기 지식인들의 행동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위진시대를 대표하는 학술경향인 玄學과 清談의 풍조는 위진 교체시기의 격렬한 정치적 투쟁을 배제하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三國志》의 裴松之注나 《世說新語》의 記事는 이 시기의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열쇠인 셈이다. 《三國演義》의 저자는 이러한 기사를 자주 자료로 이용하긴 했으나, 조조와 그 군벌집단에 대한 부정적 형상을 부각시키는데 (곧 擁劉反曹의 사상경향이다) 주로 인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집단의 지도자인 조조는 陰險怪奇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조조를 위해 일을 한 지식인들은 시대의 희생자로 묘사되고 있다. 변덕과 시기심이 많은 조조는 재능 있는 인재들을 장기관의 쭉처럼 운용했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草芥처럼 여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약자로 변한 曹魏王室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司馬懿 군벌집단을 조조군벌집단과 별 다른 없는 음험한 음모가의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司馬氏 집단이 어느 정도의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曹魏왕실로부터 선양을 받는다던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등의 행동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사마씨일가는 대단히 신중했으며, 대장군 조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마의가 보여준 모략과 기민한 행동은 曹操의 政略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결국 작품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司馬氏 집단의 흥기과정은 조조군벌집단에 대한 저자의 편견이 사마씨에게로 그대로 전이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曹操翻案’의 주장이나 ‘擁劉反曹’ 경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 역사적 진실과 민중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상적 진실은 분명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三國故事의 ‘擁劉反曹’ 경향이 대중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魏-晉의 정권교체는 그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시기 지식인들의 소극적인 처세태도가 ‘清談思想’이라는 南北朝시대의 독특한 지식인문화를 형성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三國演義》의 ‘擁劉反曹’ 경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각 시대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추적해보고, 演義와의 연관성을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參考文獻>

- 羅貫中 著 魏雯 路遠 校點, 《三國演義》, 春風文藝出版社, 1997.  
 陳壽 著 楊家駱 編, 《三國志》, 臺北 鼎文書局, 1979.  
 陳壽 著 楊家駱 編,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劉義慶 編 劉正浩 譯, 《世說新語》, 臺北 三民書局, 1996.  
 魯迅 著,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9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1.  
 李希凡 著, 《論中國古典小說中的藝術形象》,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2.  
 游國恩 等 主編, 《中國文學史》, 第4冊, 三聯書店 香港分店, 1987.  
 吳雙翼, 《明清小說講話》, 臺北 木鐸出版社, 1983.  
 정원기, 《최근 삼국지연의의 연구동향》, 대구 중문출판사, 1998.

정원기 역주, 《삼국지평화》, 서울 도서출판 청양, 2000.

陳翔華, 〈諸葛亮形象演變史論綱〉, 《古典文學論叢》, 濟南 齊魯書社, 1986.

### <中文提要>

魏蜀吳三國的歷史, 原來是非常豐富·引人注目的歷史因素, 所以到現在中國人最喜歡看《三國演義》。《三國演義》的主題, 明顯表現出‘擁劉反曹’傾向, 這種傾向也許反映了羅貫中思想的局限性。在《三國演義》中, 我們很容易找‘擁劉反曹’的故事內容。例如, 《世說新語》中橋玄的一句話是明明肯定曹操才干的說話(“君實是亂世之英雄, 治世之奸賊! 恨吾老矣, 不見君富貴, 當以子孫相留。”), 可是到了《三國演義》中, 此言已經變成了反面性的內容。(“劭曰, 子治世之能臣, 亂世之奸雄。曹聞大喜。”) 再如, 在《三國演義》, 爲了維護後漢的皇帝孔融·禰衡等人都反對曹操, 可是《三國志》裴松之注和《世說新語》中的部分記錄都不一樣, 而《三國演義》均保留了貶曹的故事情節。另外, 曹子建的七步詩等故事與歷史記錄不完全一樣, 也許曹丕不一定是那樣殘殺兄弟的皇帝。

《三國演義》的後半部可以說是表現曹魏一家衰殘崩潰的過程, 我們可以看出‘擁曹反馬’的思想傾向。這種‘擁曹’與前期作品主調的‘擁劉’呈現出不同的思想傾向, 也許是一種同情弱者的心理。羅貫中同情曹魏一家的謀臣(何晏·鄧颺), 揭露司馬氏集團凶殘的面貌, 比如, 鍾會·鄧艾等西晉名士曾爲曹魏集團立過大功, 可是他們都被司馬氏凶殘的陰謀所害。

주제어 : 擁劉反曹, 歷史小說, 思想傾向, 羅貫中, 魏晉名士.